

“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에쿠아도르(Ecuador)에 사는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크리스천이라면 규격 있는 옷을 입고 품위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적도 부근에 위치한 에쿠아도르에 가보니 거의 벌거벗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이 이방인이 되었음을 알았다.
늘을 순종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녀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장발족이나 미니스커트 입은 이들을 거리에서 단속을 하던 때가 있었다. 인간적 규범이나 규칙이 시공의 제약을 받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난해한 상황해석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자유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도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멍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했다. 초대교회의 율법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은혜의 승리를 외친 것이다. 규칙이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잘못 적용된 법에 다른 대항이 생겨 결국 문제는 계속 영키게 된다. 법정 판결이 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공동체는 깨지거나 흠집이 커진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당신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은혜를 더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 과오는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는 것이다. 법으로 따지면 감정의 고리만 끊어간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은 삶은 기록에도 인도됨으로 우리의 애매모호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규정과 규례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규제 개혁은 규제 합리화

규제 개혁은 법률 개혁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규제 개혁을 규제 합리화라고 정의한다. 규제만능주의에 매몰된 우리나라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경제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황은 역행적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두 종류의 결혼생활

첫 번째 경우는 법으로 사는 가정이다. 다른 가정은 사랑과 신뢰로 사는 가정이다. 전자는 의무 이상을 피차 하지 않는다. 후자는 서로 희생하고 돕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모든 것을 법안에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했다 해서 하나님이 좌까지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 가령 음식물 중에도 몸에는 좋으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은 정신을 진정시키나 몸엔 크게 해로운 것이 있다. 이처럼 음식, 성(sex), 약, 집, 심지어 자기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이 크리스천에게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즉 얽매이면 그것들의 종이 되기 때문 이라 한 것이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저해한다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될 수 없다” 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성장을 도모시킬 수 있는 덕을 세워야 한다. 타인의 말이나 생각하는 것에 당신의 행동기준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당신은 위선자나 미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 포기할 때, 덕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내게 있는 자유는 남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야지 다른 이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로 인해 어떤 이가 신앙 열심이나 소독에 손해를 보았다면 성경에서는 연자뱃들을 목에 매고 물에 빠져야 할 것이라 가르친다. 크리스천은 자기 일 뿐 아니라 남에게 덕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잘못된 유대주의·완전주의·자유방임주의 사상을 버리고


크리스천은 모든 진리(과학, 학문), 모든 명예(윤리), 모든 정당한 것(법률), 모든 순수한 것(도덕), 모든 사랑할 만 한 것(예술, 개인적 매력)을 항상 생각하되 이 모든 희랍문화의 이상들을 그것이 옳다면 따라야 하고 이를 하나님을 위해 성화시킬 의무가 있다. 잘못된 유대주의(율법주의), 완전주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따르지 말고 현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하는 이상주의자인 선지자처럼 살아야 한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종교적, 경제적 기득권을 갖고 습관과 윤리적 독선에 빠진 우리 사회에 주신 메세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랑한 유대인에게처럼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과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내가 남을 판단한 그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욕을 듣게 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해야 하지만 알찬, 신령한, 내실 있는 참유대인 되어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되자.

—한 국장로신문 [1434호] 2014년 11월 1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Pastor
Hymn	38..... Congregation
*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Offering Prayer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Luke 7:36—50 Pastor
Sermon	“Doubting Pharisee vs. Believing Woman” Pastor
* Hymn	53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	

우리의 비전 (vision)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p> <p>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p> <p>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서울교회 QR코드 <div></div>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야콥주한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사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박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료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제 율백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일(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진서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 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티키노동자), 훈쿠아 망, 탕, 쎌,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 이, 난, 쟁, 쟈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베, 벨,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 미얀마,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쓰, 이경업, 알로르, 비서, 누뵈도, 보디소프, 린툼, 수란권(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 권선교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담임목사 (안식) 박 노 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p>	
--	---	---

“마지막 아담, 살려 주는 영”

■ 고전 15:45~49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간의 두 가지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는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45절)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진흙으로 만든 육신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 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시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1.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인류의 대표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 아담은 교회의 대표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대표는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종교개혁 당시 몇몇 성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신다는 성경(골 1:15)을 거론하여 화형을 당함으로 종교개혁의 발원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은혜가 넘쳤습니다.(롬 5:12, 15). 인류를 대표할 사람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아니고 오직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이며 이는 언약의 역사에 다른 사람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만이 인간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언약자 이십니다.

2.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태어난 존재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로,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아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창 1:26-27, 고후 4:4) 따라서 우리들은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짐승과 같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안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우리들은 부활하신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3. 부활은 미래의 희망이며, 현재 진행중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첫 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대상과 순서에 대하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 곧 성도들이 부활하고,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죽게 되지만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항이지만 현재 상황이기도 하여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살려주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부활케 하시는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부활했으나 아직은 아니다(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설명합니다.

4. 성령 안에서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령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야 성령에도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오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흙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사람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맺는 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곧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여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을 그냥 통과 하셨습니다.(요 20:19) 이는 육신은 육신인데 그 육신은 변화된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하늘에 속한 자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우리 모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누가복음 23:43) 말씀하신 영생의 약속을 하늘에서 영광스런 부활절 아침에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영원히 사는 복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임상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준권 목사	신용식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하인선 장로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1:4 인 도 자
 찬 송 68(32) 다 함 께
 기 도 오승민 집사
 성 경 계 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설 교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79(40)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준권 목사

기 도 정경자 권사
 성 경 살전 3:1-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영안박수강

설 교

장석남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렘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양	최수향	박수강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장애인 주일을 맞아 사랑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특 별 찬 양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웨스트minster 홀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알 림

1. 오늘부터 매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이종윤 원로목사의 강해설교가 계속 될 것입니다.

기도와 기대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청년부 다락방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3. 5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4.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김동건(치과), 노제현(안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이수영 목사 소개

서울대학교 철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Th.M.)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대(Ph.D.)

미국 뉴브런스신학대학(D.D.)

한국감빈신학회장

장신대 조직신학교수

한국기독교학술원 부원장

서울여대 이사장

새문안교회 은퇴목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1039명	258명	288명	1,585명	168명

수입, 지출 내역 보고(4/1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비 고
4월16일	전주이월	132,203,736		
"	헌 금	67,837,600		십일조 :29,696,000 주일: 3,989,100 감사 :1,930,000 교회학교: 92,500 금식: 3,248,000 특별: 3,000,000(이종윤 원로목사) 부활절감사: 23,497,000 기타: 2,385,000
"	교회학교교육비, 운영비		930,000	고등부 순결서약식 기념패 외
"	선 교 비		700,000	연세의료원 후원 외
"	구 계 비		1,834,000	성도구제
"	행 사 비		461,900	성금요일 기도회 식사 준비 외
"	출 판 비		270,000	순례자 발행
"	사무용품비		8,000	모니터 수납 받침대 외
"	통신비		1,667,690	전화료 외
"	차량유지비		574,000	부교역자 차량 주유 외
"	세금과공과		2,694,060	아가페타운 도로사용료
"	복리후생비		192,840	병원비 외
"	수도광열비		495,000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	보 험 료		3,890,200	화재 배상책임 보험료
"	수선유지비		1,487,880	건축물 안전 점검 외
"	식당운영비		574,470	전체성도 식사 외
	합 계	200,041,336	15,780,040	잔 액 \184,261,296
* 특별헌금: 신용식 장로가 홍순복 사모님 계좌로 목척헌금이라며 입금한 3,000,000원을 이종윤 원로목사님이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소유와 삶

가진 것이 없이도 의미 있게 인생을 살다간 사도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그들은 목적 의식이 분명했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심을 갖고 인생을 산 이들도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값지게 산 이들의 표본이다.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간 헤롯대왕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는 일마다 죄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이기적인 것이었으며 추구하는 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뿐이었으니 그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을 리 없고 더구나 감사와 보람은 찾을 수 없었다.

소유가 적다는 구실로 봉사할 기회를 외면해서도 안되지만 인생의 성패가 그 소유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바쳐 오천 명을 먹게 한 소년의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될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